

■ 2024년도 상반기 호텔프린스 소설가의방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상반기 호텔프린스 소설가의방 지원심의
- 회의일시 : 2023년 11월 13일(화), 14:00~
- 회의장소 : 호텔프린스서울 세미나실(2층)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태용, 오현종, 정진영 심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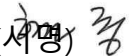
성실한 소설가는 무엇을 쓸지, 어떻게 쓸지 날마다 생각한다. 그리고 매일은 아니라도 어디에서 쓸지 자주 고민한다. 소설가에게 작업의 공간이란 그렇듯 단순하지 않다. 집중이 잘 되는가, 많이 쓸 수 있는가를 넘어서 소설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하니까. 낯선 이야기를 위해 힘들여 새로운 공간을 찾아 나서는 이들이 소설가이기에 '소설가의 방'은 중요하고, 심사위원 세 사람은 주어진 여섯 개의 방에 알맞은 작가를 찾아줘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했다.


23명의 작가가 지원한 이번 공모도 심의기준, 심의절차 등에서는 그간의 심사와 다르지 않았다. '작품집 발간을 앞둔 신진 소설가의 안정적 집필 활동'을 후원한다는 사업 취지에 맞게 밀도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을지 가능하려 애썼다. 지원신청서와 발간 계획, 첨부 작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근래의 작품활동을 주의 깊게 점검한 까닭은 2024년 상반기 모집부터 지원자격을 '소설분야 첫 창작활동 이후 5년 이내 혹은 두 번째 출간 준비 중인 작가'로 한정 지은 것과 뜻을 함께한다. 개인 작업을 가시적인 결과물로 만들어 2025년 이내 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지원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소 모호한 계획보다 신진작가로서 이뤄온 성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장르와 상관없이 단기간 집중할 수 있는 작가를 지지하고자 했고, 지원모집공고에 명시한 대로 수도권 이외 지역 거주자에게 가산점을 주었다.

심의의 기준이 선명했기에 이견이 거의 없었다. 순조롭게 의견을 모은 가운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달라진 지원자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지원한 작가들이 여럿 있었다는 사실이다. 새롭게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아 기회를 드릴 수 없었던 지원자들도 올해 세운 계획과 뜻을 다른 공간에서 순조롭게 이뤄가시길 기원하겠다.

돈이 안 되는 일,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본 사람들이 소설가이다. 그런 일에 전념해 보았기에 '소설가의 방' 사업을 십 년 넘게 진행한다는 게 어떤 일일지 어렵짐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사심 없이 공간을 제공한 사람과 공간에 머무른 사람의 마음이 만나 무엇을 만들어 낼까. 선정된 소설가들에겐 응원을, 그들의 낮과 밤을 지켜줄 호텔프린스엔 이른 감사를 전한다.

-심사위원 일동

심의위원명 : 오현종 (서명) 

김태용 (서명) 

정진영 (서명) 